



축복의 통로, 방글라데시

2015_07/08 (13번째 서신)

앗살람 알라이쿰.

그분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곳은 매일 같이 내리는 비 때문에 도로가 강이 되어버리는 우기입니다. 본국의 땅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날마다 사람의 단비로 가득차길 소망하며 저희의 7,8월 소식을 전합니다.

☆ 알람: 저희와 소통하실 때 ㅅㄱㅅ, ㄹㅅ 등 전에 사용하시던 통상적 호칭을 삼가해 주십시오. 또한 편지에 약간의 보^안^ 용^어가 사용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 '록띠빨' 여행

서문 방글라 이주민 센터에서 만난 친구 이스마엘이 잠시 고향에 왔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시골집으로 저희를 초대했고, 덕분에 엄청난 교통체증과 공기오염이 가득한 수도 다카를 떠나 방글라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배를 타는 곳까지 3시간, 배를 타고 3시간, CNG를 타고 1시간 여를 달린 여정이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향한 무슬림의 환대는 저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2박 3일을 이스마엘 누나집에 머물며 그의 부모님과 형제, 매형의 노모와 형제, 온 동네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을 처음 보았다며 반가워했고, 가는 곳마다 넘치는 음식으로 대접 받았습니다. 이스마엘 부모님은 저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루에 물은 2번만 나오기에 그들은 뿌꿀(동네 연못)에서 야채다듬기, 설거지, 빨래, 목욕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뿌꿀은 녹조가 가득해 깨끗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과 똑같이 그 곳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밤에는 창문, 모기장이 없는 집에서 더위와 모기에 잠을 설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깨어나면 바퀴벌레와 대형 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건 아직 무리였을까요? 돌아오는 날 아내의 설사가 시작되더니 집에 와서는 3일 간 고열로 앓았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분을 닮아가기란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 언어, 리서치 그리고 모임

언어는 기초 과정이 끝나고 중급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방향성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타 단체들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언어기간 동안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M사역자들과 함께 무슬림을 위한 중보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무슬림들은 해가 떠있는 동안 금식을 하며 물도 침도 삼키지 않는 라마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해서 손모아 주십시오.

■ 정착과 비자 준비

7월이면 현재 지내는 집에서 지내기로 한 기간이 끝나고 8,9월에는 또 다른 한인 선생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두 달간 살림 장만없이 지내게 되어 정착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10월부터 지낼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비자 연장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카대학교 어학당 입학에 대해 총장을 직접 만났고 입학 허락을 받았습시다만 아직 비자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카대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잡한 절차와 허가가 필요한 곳입니다.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가려면 국정원 조사를 받는 등 적어도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HNL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

- 1) 그 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영육이 건강하도록
- 2)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알아가도록
- 3) 언어 습득, 정착과 적응, 차년도 비자 준비가 그 분의 뜻 가운데 순전히 이루어지도록
- 4) 7월 마지막 주간 파송회사인 서울서문에서 의료팀이 들어오고 저희는 부족하나마 통역으로 섬깁니다.
통역과 모든 사역의 기름부으심을 위해서, 단기팀을 통해 그 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 5) 고*신*사교전략팀 ASK팀 세 가정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심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류 일, 박수진

070-8688-6898

navyradioman@한메일.넷

외 환은행 9900-147-05562

(예금주 KPM류일)

